“광주 外高 재심의”

시교육청, 대광외국어고 설립 철회 수순밟기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외국어고(지정)신청을 재심의 하기로 했다.

이미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교과부에 지정 협의를 요청해놓은 외국어고 설립을 철회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2일 외국어고 지정 심의 위원회를 다시 열어 교과부에 협의 신청중인 가칭 ‘광주대광외국어고’ 설립신청을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국정감사와 시의회(교육위원회) 등의 반대 의견, 해당 학원의 추가출연 수익용 기본재산 신고 누락 등 재심의를 위한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고 재심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심의는 지난 9월24일 협의 신청이 가결된 후 40여일만에 열리는 것으로 그동안 재심의를 열어야 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의·의결된 안건을 재심의해 상반된 결과가 나올 경우 재심의의 법적 효력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직권으로 교과부에 제출한 협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지만, 다시 심의를 거쳐 철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심의는 장 교육감이 외고 설립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교과부에 협의 신청을 취소하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 교육청은 심의 개최 7일 전에 사전 통보와 서면으로 안건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과 이틀전에 심의 개최를 통보했다.

한편,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부교육감을 포함한 5명이 교육청 간부이며, 교육의원, 학교장, 변호사, 학부모, 교수, 언론인 등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임 안순일 교육감 재임 당시 외국어고 설립을 위한 지정협의를 교과부에 신청한 상태며 오는 26일까지 최종 결과가 통보될 전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나주 농민들 쌀 야적시위 나주농민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나주시청 앞에서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쌀가마를 야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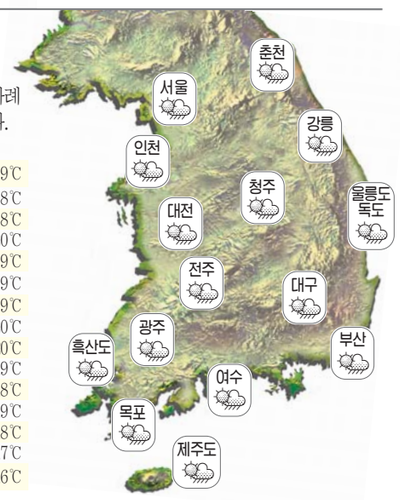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03분 해짐 17시 30분 달뜸 11시 38분 달짐 21시 59분

우산 챙기세요

차차 흐려져 오후에 한두차례 비가 내리고 밤에 그치겠다.

광 주	오후 한때 비	7/19℃
목 포	오후 한때 비	8/18℃
여 수	오후 한때 비	9/18℃
나 주	오후 한때 비	4/20℃
완 도	오후 한때 비	7/19℃
구 례	오후 한때 비	2/19℃
해 남	오후 한때 비	3/19℃
장 흥	오후 한때 비	3/20℃
고 흥	오후 한때 비	5/20℃
순 천	오후 한때 비	6/19℃
영 광	오후 한때 비	4/18℃
진 도	오후 한때 비	6/19℃
전 주	오후 한때 비	5/18℃
남 원	오후 한때 비	0/17℃
흑산도	오후 한때 비	11/1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먼바다	남~남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먼바다	남~남서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2.0~4.0m
먼바다	남~남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2.0~4.0m
먼바다	남~남서	2.0~4.0m

	밀물	썰물
목포	04:53 17:47	10:10 23:07
여수	12:23 --:--	05:33 18:3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날 씨						
최저/최고	8/17	7/16	7/14	4/11	4/14	5/15

광주은혜학교 설립 등 교육·사회복지 헌신

■ 사랑의 씨튼 수녀회 한국 선교 50주년

광주은혜학교를 설립하는 등 1960년부터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선교와 봉사활동을 펼쳐온 사랑의 씨튼 수녀회(관구장 오세향 수녀·이하 수녀회)가 올해로 한국 선교 50주년을 맞았다.

수녀회는 12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오룡동 은혜학교에서 ‘한국 뿌리내림 5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지금까지 선교와 봉사활동의 성과, 수녀회 활동에 공이 큰 수녀들의 공적을 기릴 예정이다.

특히 이 수녀회는 강진 성요셉여중고에서 영어와 무용을 가르치며 50여년간 사랑을 실천해오다 지난해 11월 선종한 푸른 눈의 교육자 양노린(미국이름 메리 노린) 수녀가 소속돼 있었던 수녀회이다.

오스발도 파딜라 주한 교황 대사와 김희중 광주대교구 교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미사에서는 50년 수도회 역사를 상징하는 초창기 수도복과 수도회 정신이 담겨있는 ‘회헌’, 전 수도회원들이 1년간 필사한 ‘마더씨튼 명상록’을 헌정한다. 미사 후에는 한국 관구 소속 수녀 50여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수도회 창설자인 성녀 엘리사벳 앤 씨튼을 찬양하는 칸타타 ‘하늘을 보라’ 전곡을 합창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농어촌 여성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장애인을 위한 ‘광주은혜학교’와 ‘씨튼어린이집’을 설립, 봉사활동을 펼쳐온 국제 사랑의 씨튼 수녀회 총장 문말린(미국이름 말린 몬달렉·69) 수녀에게 광주명예시민증과 메달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수녀회는 2006년부터 수녀회의 위상과 사업을 재정립하는 진단식별과정(2006년~2009년)을 거쳤으며 2008년에는 수녀회 총회를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연대하고 우리의 은사를 경청함으로써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받아들일 것을 선포한 ‘비전 선언문’을 채택했다. 문의 062-571-300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 63개 특성화고 48개로 재편

도교육청, 2015년까지 … 마이스터고 2·일반고 15개로

전남도내 63개 특성화고(옛 전문계고)가 오는 2015년까지 48개로 재편된다.

전남도교육청은 9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열린 전남직업 교육선진화 추진 연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직업교육 선진화 계획안’을 제시했다. 지역의 거점·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형 특성화고’로 묶어 집중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현재 63개인 특성화고는 46개로, 마이스터고는 2곳, 일반계고는 15개교로 재편된다. 연찬회에 참석한 김환식 교과부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전남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대 부설초등 신입생 다문화 가정 자녀 4명 선발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는 2011년 신입생 모집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를 뽑는다고 10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가정 등으로 남여 학생 2명씩 모두 4명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입학이 확정되면 기초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내외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원서접수는 일반전형과 같이 15일부터 24일까지며 추첨은 25일 실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